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4월 21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수출입과 안병화 과장(02-2110-5331), 강미숙 사무관(5333)		

지경부, 주요 수출기업들과 수출 대책 논의

- 對中수출 전략, 한·미 FTA 효과 극대화 등에 대해 논의 -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12.4.20(금)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수출기업과 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등 대표적 중소기업 수출업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함

○ 금번 회의는 1/4분기 수출 및 무역수지가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향후 여건·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 참석자들은 지역별(KOTRA), 산업별(산업연구원) 전문가로부터 최근 동향과 전망을 보고 받고, 주요 품목의 수출 체감경기 및 대외여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함

□ 홍석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EU 재정위기 지속과 중국의 수출 둔화 등의 여파로 1/4분기 우리 수출이 부진했음을 언급하며 2/4분기 이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對EU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되고, 對중국 수출도 정체 상태에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함

○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수출 부진, 내수 위주의 성장정책으로의 전환 등으로 對中 수출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언급하고,

- 최근 위안화 변동폭 확대도 우리의 對中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간재 중심의 對中 수출 전략을 수정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 참석자들의 논의에 앞서 KOTRA와 산업연구원은 지역별·산업별 수출 여건과 전망에 대해 분석·발표함

○ KOTRA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2/4분기 이후에도 수출 확대가 제한적인 반면, ASEAN, 중동 등 신흥국은 대체로 수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산업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 국제유가, 엔저 등 교역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주요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함

* 유럽 재정위기는 조선,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고유가는 전자부품 및 자동차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수출기업 및 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래의 기회를 대비한 新기술개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지속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함

* 디스플레이 : 고화질, 저소비전력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신기술 개발(무안경 3D, 플렉서블 등)
* 섬유 : 스트림간 협력 기술개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섬유제품 개발
* 선박 :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개발, 친환경·고효율 선박 개발

○ 업종별 수출 환경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등으로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는 전략이 필요함에는 한 목소리를 내었음

* 자동차 및 부품 : FTA 효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 반도체, 조선 : 시황 악화, 주요기업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여건 악화

○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은 최근 발효된 한-미 FTA가 자동차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막연한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을 덧붙이면서,

- 조합의 노력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정부는 세계경제의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민관의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對中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KOTRA 등을 통해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지난해 대폭 확대된 중국내 무역관을 통해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내수시장 공략을 지원할 계획임

* '11년 중국내 무역관 7개 신설('12.2월 현재 총 16개) 등을 통해 중국 진출 지원 강화
** 온·오프라인 유통 바이어 초청 상담회(반기별 1회), 지역별 타깃 유통기업 선정 등

- 대형 공공프로젝트 참여 확대, 중국의 신흥전략산업 진출 강화 등도 꾸준히 추진하여 對中 수출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임

○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제 2 중동붐"이 기대되는 중동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채널 강화를 추진하고,

* 카타르 무역관 신설('12.5월), 중동 주요국가와의 경제협력 채널 강화 등

- 대규모 공공프로젝트와 연계한 플랜트 수주 및 관련 기자재 수출과 함께, 높아진 소득수준에 부응하는 고급 소비재, IT분야, 의료 등 서비스 산업도 적극 공략할 예정임

* 아부다비 한국 상품전('12.5월), 중동 자동차 부품 상품회('12.하반기), 중동 ICT 로드쇼('12.5월), U-헬스 중동포럼('12.하반기)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예정

○ 한-미 FTA는 발효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나, 향후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 내고,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세와 맞물려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지경부는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분기별로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과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체계적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첨부 1 :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요
첨부 2 : 업종별 수출 여건

참고 1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요

1. 회의 목적

□ 최근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의 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

○ 분야별 전문가(지역별, 산업별)로부터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 체감경기 점검과 2/4분기·연간 전망 토론

2.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12.4.20(금), 14:00~15:30 / 지경부 다산실(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지경부(장관 주재), 주요 업종, 연구소 관계자 등 약 15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지역별 동향	코트라	글로벌정보본부	배창헌
산업별 동향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강두용
조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한국 조선협회 회장)	고재호
반도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	홍완훈
자동차	현대자동차	해외영업본부장 (부사장)	김승탁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센터장 (전무)	이방수
철강	한국 철강협회	부회장	오일환
기계류	서광공업	사장	김윤철
자동차부품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달석
섬유류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이사장	박상태

□ 진행순서

시 간		내용	비고
14:00~14:05	5"	인사말씀	장관
14:05~14:20	15"	지역별·업종별 수출입 실적 및 전망 발표	코트라, 산업연구원
14:20~15:25	65"	업종별 수출여건 및 전망, 주요기관의 지원 방향 등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5:25~15:30	5"	마무리 말씀	장관

참고 2 업종별 수출 여건

업종	수출 여건
반도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판매 확대 예상 - HDD 공급 개선에 PC 수요 증가, 모바일 신제품 출시, 데이터 센터向 서버 확산 기대 ·다만, 대만업체의 가동률 상승과 DRAM 가격 경쟁 심화 우려
디스플레이	·가동률 조정, 신규투자 축소 등으로 공급과잉에 대응중이나, - 중국의 8세대 공장 가동에 따라 글로벌 공급 과잉 지속 ·세트업체의 재고 축적 움직임, 공급량 조절 등으로 4월 패널가 소폭 반등 * TV용 패널가격($) : 32인치 ('12.3)125→('12.4)126, 42인치 ('12.3)206→('12.4)208
조선	·旣확보한 물량에 대한 원활한 건조·인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 수주당시 선가 약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 불가피
자동차	·그간 수출 호조세를 보였으나, 향후 시장 여건 녹록치 않음 * '12년 자동차 수요 : 7,727만대 예상(전년대비 4.2% 증가) - 美 경기 회복세이나, 유럽경기 침체로 자동차 산업 경기 불투명 - 이란 사태로 인한 고유가 로 자동차 수요 위축 우려 - 미·일 업체의 공세강화로 경쟁 심화
철강	·수출단가 개선, 수출 확대 노력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유지 예상 ·아세안, 중동 등 신흥국과 아연도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
자동차부품	·국내 완성차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FTA 효과 등으로 미국, EU에 대한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 2위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신차 제한 정책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 ·일본 완성차업체의 OEM 납품 적극 검토는 긍정적이나, 부품의 현지 조달률 상승은 불안요인
섬유류	·유럽 경기 회복 지연,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유지할 전망 ·또한, 미국 소비심리 회복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의류용 원단 수출 증가 예상